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회 2007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해 11월 전북 익산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6곳에서 AI가 발생하여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2003년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때보다는 우리 업계가 받는 충격이 다소 완화된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물론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때마다 20% 이상의 소비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제 AI는 우리의 숙명이 라고 여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병원성 AI발생이 철새에 의해 전파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를 지켜낸다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렇다고 무작정 손을 놓고 지켜볼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금 더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모이신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올 한해 우리 계육협회가 나아갈 방향과 사업계획을 확정짓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업계가 지금 이 위치에 서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 역시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어려움의 시작이 바로 올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 업계는 나름대로 활로를 찾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예상 밖의 상황전개로 결론을 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육계 의무자조금의 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 21일 안성 농협연수원에서 육계자조금 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었으나 부결되어 결국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육계자조금은 좌초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조금 사업은 우리 업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의무자조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어떠한 형태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는지, 또 닭고기 산업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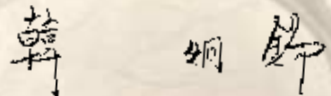
여기 계신 여러분이 우리 계육협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어려운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며,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지가 퇴색하지 않는다면 우리 계육산업의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신뢰와 믿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뜻을 모아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업계 전체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올 한해도 가내에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2. 23

회장 한형석



2007 | 3 · 27